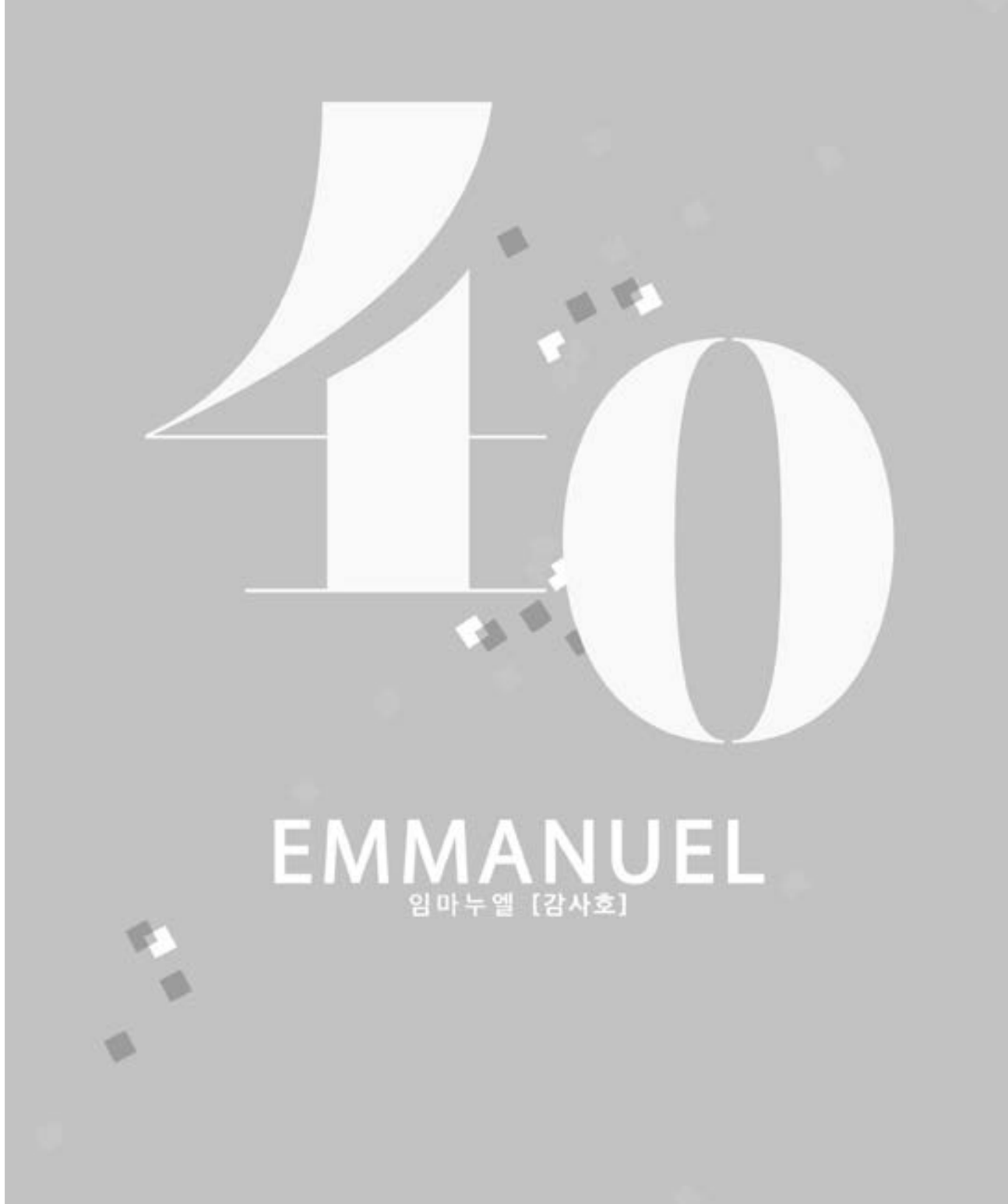
OCTOBER/ 2020
Vol.24

40

EMMANUEL

임마누엘 [감사호]

"40주년을 맞이하는 임마누엘 교회를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안식처와 같은 곳, 임마누엘의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EMMANUEL
임마누엘 [감사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8

캘리그래피 | 청연 한미희

Contents 목차

미래를 감사로 열어가는 임마누엘 교회 40주년 특집 기획

담임목사 칼럼 - 은혜의 세월이었습니다 08

임마누엘 발자취 10

세계를 품은 천국 복음 14

나에게 교회란 22

임마누엘과 함께 40이 되었어요 26

배움에서 가르침으로 28

은혜로 자라 복음을 나누다 30

임마누엘 4대 손손 36

회상! 추억의 40년 38

또다른 영광의 40년을 향하여 44

섬기는 이들 46

예배 및 모임 50

은혜의 세월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1980년에 세워져서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40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인도해오신 은총의 세월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주신 은혜들을 열거하자면 지면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 우리가 다음 세대에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세가지만 글로 남기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주신 많은 은혜 중 첫째로 기억나는 것은 "연합"입니다. 우리 교회는 1982년과 1991년에 두 번 분열하여 세 교회가 되었다가, 1992년과 1994년에 두 번 연합하여 다시 한 교회가 된, 아름다운 연합의 역사를 지닌 교회입니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모두 부족했고 연약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이루신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많은 교회에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고, 세상의 조롱을 받는 모습을 너무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 교회 연합이라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연합의 이 은혜를 다음 세대에도 계속 소중히 간직하고 또한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주신 은혜 중 두번째로 기억나는 것은 바로 "가정교회" 목장의 시작입니다. 1998년 가을에 '생명의 삶' 1기가 시작되고, 1999년 4월에 목자 19명을 임명하여 21개 목장으로 우리 교회에 가정교회가 시작되어서, 오늘날 97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127 목장이 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신도 목회자가 되어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양떼를 섬겨주신 모든 목자, 부목자님 한분 한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롬16:5, 고전16:19, 골4:15, 몬1:2)의 줄임말로,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참 모습니다. 초대교회는 주후 4 세기 초반까지 약 3백년 동안 건물을 갖지 않고, 신자들의 집들에서 모였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배당 건물에서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가정과 목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집에 있는 교회"가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리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 많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열정으로 찬양을 드리는 두 찬양대를 주셨고, 늘 기쁨과 성실함으로 예배를 열어가는 수요, 1-4부 찬양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성도 여러분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예배는 우리가 평생, 아니 천국에 가서도 잊지 못할 소중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하나 하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창립 40 주년을 맞이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부족하고 실수 많은 저를 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기도해주신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만,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더욱 더 깊고 풍성하게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닦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글 | 손원배 목사

[태동기]

1980-1997

임마누엘 장로교회 창립과 첫 예배당 구입, 분열과 연합

1980

"**임마누엘 장로교회**" 창립, 전통적 개혁주의 신앙을 같이 하는 6가정이 조병순 장로 댁에서 기도회로 시작. 초대 림택권 담임목사 청빙

1982

김진이 2대 담임목사 부임

1985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 가주노회에 가입

1990

첫 예배당(945 Willow St., San Jose 소재)을 구입하고 입당 첫 예배

1993

제3대 담임목사로 천정웅 목사가 부임. 12월 천정웅 목사님 소천

1994

온누리 장로교회와의 연합을 결정

1982

탁장제 집사 외 40여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브니엘 장로교회**" 창립

10년간 이성락 초대 목사로, 손경호 목사, 이순권 목사가 담임을 역임

1992

온누리교회와의 연합을 결정

1991

김종수 장로 외에 8가정이 떠나 산호세 "**온누리 교회**"가 창립

1992

손원배 목사가 초대 담임목사로 부임, 4월 브니엘 장로교회와 연합, 교회 명칭을 온누리 장로교회로 정함

1994

"**임마누엘 장로교회**"와의 연합을 결정

—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따라, 앞서 분열되었던 브니엘 장로교회와 온누리 장로교회가 다시금 **임마누엘 장로교회로 연합**하여, 함께 예배를 드림

[성숙기]

1998-2007

새 예배당 구입 및 입당 감사예배, "가정교회" 목장을 세우고 분가하며...

1998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일 4:16)이 전을 채우라!"를 강령으로 내걸고 기도 중에 교회 부흥으로 새 예배당(2526 Homestead Rd., Santa Clara)을 구입하고 입당 예배를 드림

가정교회를 위한 제1기 생명의 삶을 시작

1999

가정교회 시작 (21개 목장)

2000

창립 20주년 감사예배

2002

제10회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주최 (미주 전 지역에서 120명이 참가)

추수감사절 제1회 무숙자 초정 잔치

2003

무숙자 아침 식사 봉사 시작 (Salvation Army)

김종수 장로 내외분 중국 단동에 SAM 선교사로 파송

2004

김욱현 장로 내외분을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 파푸아 뉴기니 선교사로 파송

안병호 장로를 중국 집안에 SAM 선교사로 파송

뉴멕시코 예배당 겸 문화센타 건축을 위한 단기선교팀을 파송

2005

창립 25주년 감사예배

김경수 목사를 Berkeley 대학 중국 유학생 선교사로 파송

2006

새 예배당 감사 기공예배

2007

새 예배당 입당 감사예배 (4435 Fortran Dr., San Jose)

[발전기]

2008-2013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공유하며...

2008

북가주 선교대회를 개최, AWANA 프로그램을 시작, 사랑의 장터 시작

2009

독거 및 노부모님 가정의 긴급고장 수리와 영문서류, 편지번역 봉사를 시작

정혜림 집사를 아프리카 니제르 선교사로 파송

2010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 베데스다부 사역시작 (환우와 환우가족 섬김)

현영 집사 A국 선교사 파송

2011

기도의 해, 수요기도예배 시작

SAM 단동병원 건물 건축을 위해 김항식 장로를 파송

10주년 다민족 연합 기도집회 개최

2012

성경통독의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는 신앙 목표로 성경일독, 성경읽기를 시작

홍추민/홍보영 선교사를 네팔 선교사로 파송

2013

영혼구원의 해, 선교와 전도를 다짐하며 새해를 시작

주일 예배를 위한 주일 아침 중보 기도회 시작

임마누엘 상담실 오픈, 탈북민 지원 사역을 시작

[중흥기]

2014-현재

예배의 회복

2014

예배의 해, 예배 회복을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고 섬기기로 헌신하며 시작

2015

선교의 해,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는 표어로 새해 시작

창립 35주년 감사 예배

2016

성경통독의 해 시작, 화요 여성예배 10주년 기념예배

박성호, 김인환, 박기한, 이산돌 부목사 부임

2017

영혼구원의 해, “내 평생에 한 영혼을 구원하자”는 표어로 새해 시작

장애아동 및 장애인 사역 시작 (사랑사역부)

2018

성숙의 해, “범사에 예수님을 닮으며 자라가자”는 표어로 새해를 시작

정광 선교사 파송

소수민족교회 지도자 부부 초청 세미나를 개최

미국내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국내선교 세미나를 개최

단기선교: 멕시코 엔세나다, 오클랜드 몽골, 굿뉴스클럽, 네팔(헤토다), 네팔(포카라), 아이티, 멕시코 산텔모, 인도, 나바호, 아이티

2019

선교의 해, “그러므로 가라”는 표어로 새해를 시작

임마누엘 선교대회를 개최

김경수, 명형주 선교사를 파송 선교사로 임명. 김모경, 박에스더 시니어 선교사를 임명.

박성호 목사 임시 공동의회에서 담임 목사로 선출

단기선교: 인도/미얀마, 나바호, 니제르, 아이티, 태국 치앙마이, 코스타리카 인디오, 키르키즈스탄 비쉬켁, 프레즈노 몽족, 네팔 헤토다, 네팔 베니, 네팔 카트만두, 중국, 모로코

2020

성경통독의 해, “말씀 위에 굳게 서자”는 표어로 새해 시작

이정미 선교사를 인도 선교사로 파송

창립 40주년 담임목사 이취임식, 장로, 권사, 집사 임직 예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14)

120년 전 조선이라는 한 미전도 종족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전 세계로 흩어져 선교와 부흥의 여정을 담당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 오늘의 임마누엘 교회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며 그 복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했던 많은 주의 종들을 기억 하고자 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따를 때 오직 그분께 순종하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이 빚으신 열매들을 만날 수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임마누엘 장로교회 40주년을 돌아보며 발간되는 소식지에 선교사님의 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Shalom from Japan

God gave me a calling for overseas missions in 2005, while I was still a student at Cornell University. After graduating, I prepared to go overseas by going to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and getting experience working full-time. In November 2010, by God's grace, I had the opportunity to serve as the middle school 전도사 at Emmanuel Church until August 2013. During my last few months at Emmanuel church, God opened the door for me to go to Japan. I joined an international mission agency called Pioneers, and arrived in Japan on February 5, 2014. It was very difficult to leave the middle school students I loved, but I'm very thankful to stay connected to Emmanuel church and supported as a 협력선교사. Currently I am focusing on prayer ministry in Japan. Our vision is to see a global prayer movement for Japan. We want to call and equip God's people in Japan and around the world to pray for Japan. I am working with other missionaries and Japanese Christians on prayer resources (ex: prayer booklet, prayer trips) and prayer initiatives (ex: nationwide Zoom prayer meeting). Some people think that there are many Christians in Japan, just like in Korea. They think Japan is doing fine and doesn't need prayer. But less than 1% of Japan's population is Christian and Japan has often been called a "missionaries' graveyard." Missionaries and Japanese Christians are working so hard to share the gospel in Japan. But we need your support through prayer. When you pray, we believe that God will answer your prayers and strengthen the work of his people here. Prayer is one of the greatest spiritual needs in Japan.

In November 2010, by God's grace, I had the opportunity to serve as the middle school 전도사 at Emmanuel Church until August 2013. Even though it was a short time, it felt like a long and deep time. It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imes in my life. Through the middle school students, I learned more about God as a Father. By watching them, I learned how to have faith like a child and how to live as a child of God. I'm so thankful for those precious years.

Currently I am supported by two groups at Emmanuel. I first met the leaders (남기영/유연주목자님 and 한James/한진희목자님) because they had children in middle school when I was the 중등부 전도사. I'm so thankful to stay in touch with their families. It feels like a special connection. Many of the students are now in college or older, so I stay in touch with them through the EM ministry. A few of the students also came to Japan for study abroad during college and stayed longer for missions! I'm so proud of them, and especially thankful to Julie Park who interned with me during a very busy and difficult time.

Forty years is often portrayed as one generation in the Bible. In the Bible and in our own families, we can see how difficult it is to pass down faith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So it is very significant to celebrate God's faithfulness for 40 years at Emmanuel church. I praise God for sustaining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for this past generation, and I pray that he will continue to use Emmanuel to declare his glory to the next generation! May God fill this 40th year anniversary celebration with his joy and his presence!

글 | Sarah Jang

헤토다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2014년 2월에 함께하는 선교회를 통하여 네팔로 파송이 되어 네팔의 Hetauda라는 중소 도시 인근의 두곳 빈민촌 마을에서 예수 문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수 문화 학교는 In Jesus Christ, we all are equal and precious!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존귀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힌두의 카스트문화가 지배하는 네팔에서 그곳의 빈민촌 아이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피로 참 자유함을 받아 예수님의 일군으로 자라게 하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문화 학교의 교훈입니다.
Be responsible for yourself! (네 자신을 책임지라!)
Be responsible for your family! (네 가정을 책임지라!)
Be responsible for your community! (네 마을을 책임지라!)
Be responsible for your country Nepal! (네 국가 네팔을 책임지라!)
Be responsible for the world! (세계를 책임지라!)

저는 2002-2003까지 부교역자로 사역하던 중 2003년에 버클리 대학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때 파송 선교사로 삼아 주셨고, 2014년에 사역지를 네팔로 바꾼후 약 2년전에 다시 파송 선교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5번의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셔서 저는 물론이고 예수 문화 학교와 함께하는 12명의 교사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많은 용기와 위로를 주셨습니다. 먼 타국/타문화에서 오셨지만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은 문화의 다름을 뛰어 넘는 절대적인것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 주셔서 아이들에게 깊은 감명과 기억을 남겨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의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의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국 베이지역에서 목회와 선교의 선도역할을 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미국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 넘어 모든 교회에 변해가는 세계속에서 교회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로 이미 자리 잡았고 계속해서 자라갈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장로 교회는 그저 몸집만 큰 교회가 아니라 선교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는 목회를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파송 선교사로 삼아 주신것이 저에게는 단지 후원 받는 기쁨을 넘어 무한한 영광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달려 오신 지난 40년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께는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때까지 달려가실 선한 발걸음에 늘 주님이 동행하시고 힘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글 | 김경수 선교사

포카라에서 인사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선교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본교회를 주님의 제자양육과 세계선교에 40년간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저는 1989년부터 임마누엘 교회에 몸담으며 목자로서, 선교위원회로, 당회원으로 감사히 섬기던 중 2012년 2월 12일 임마누엘 장로교회 당회의 결정으로 네팔에 파송 되었습니다. 네팔의 선교 핵심은 '산악지역 가정교회 개척'과 '사람을 세우는 일' 입니다. 히말라야 무스탕 지역의 마지막 도시인 '베니'라는 곳이 있는 'Grace Church'와 8년간 동역하며 그곳을 베이스캠프로 하여 개척해야 할 산악지역의 종족과 같은 종족을 훈련하여 가정교회의 리더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악지역 두 곳에 가정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네팔 지도의 중앙에 위치한 '포카라'에 2015년 청소년 양육의 목적으로 'Jubilee Church'를 개척하였습니다. 월요일에는 청소년들의 성경공부, 수요일에는 수요 찬양 예배, 주일은 주일예배로 함께합니다. 6년 전에 시작한 고아원인 '아버지의 집'에서 18명의 네팔 소녀들이 함께하며 이들 중 5명이 찬양팀을 인도하며 현재 16세 이상인 8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중 제일 큰 아이 '데보라'는 현재 한국의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에서 목회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3년후 네팔에 돌아와 'Jubilee Church'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특별히 선교지의 현지인 '차세대 리더십 양육'에 많은 관심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이렇게 전략적 선교에 마음을 다하여 섬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그동안 본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참복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잃은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의 역사를 써 가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참으로 길다면 긴 40년. 그동안 많은 아픔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일 하심으로 인하여 모두가 잠잠하게 하시고 부흥과 성장의 역사로 발돋움하게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임마누엘 행전을 써갈 때에. 참 부흥을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에, 차세대 리더 양육에 온 마음을 다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지체들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저희들을 언제까지 이 네팔 땅에 있음을 허락하 실지는 모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힘껏 중보라며 살아가겠습니다. 40년간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축하 메시지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글 | 홍추민 선교사

이스라엘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에서 명현주 선교사입니다.

저는 2010년 9월에 이스라엘에 와서 2019년 임마누엘 장로교회 파송을 받아 현재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기독교 및 일반 방송국들에 내보내는 미디어 사역과 중동의 기도의 집들을 중심으로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홈스테드에 있었을 때부터 몰래 몰래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던 때라, 한국에서 부모님이 방문하실 때마다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다른 한인 교회들도 많았지만, 손 목사님의 겸손하신 모습에 감동이 되어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 이곳으로 와야겠다" 다짐했었지만, 2008년이 되어서야 등록 교인으로 다니게 됐습니다. 등록과 함께 유치부 교사로 섬기기 시작해 2010년 9월에 이스라엘로 오기 전까지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중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직장과 집까지 정리하며 갑작스럽게 이스라엘로 오면서 교회 어르신들을 놀라고 당황케 해드렸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앞뒤를 보지 않고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땅을 밟으며 현지 교회를 섬기고 중보기도를 해왔고, 2012년에 이스라엘 현지 법인 KRM 뉴스 에이전시를 설립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딸은 교회에 연락을 자주 못 드렸지만, 그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저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신 손원배 목사님과 교회에 너무 감사 드립니다. 2014년 에녹 평원의 김옥남 권사님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 주셨고, 2019년에 정식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역하는 자매 2명과 함께 총 3명이서 이스라엘과 중동의 주요 뉴스와 전 세계 중보기도자들을 위한 기도제목들을 예루살렘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의 40세 생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하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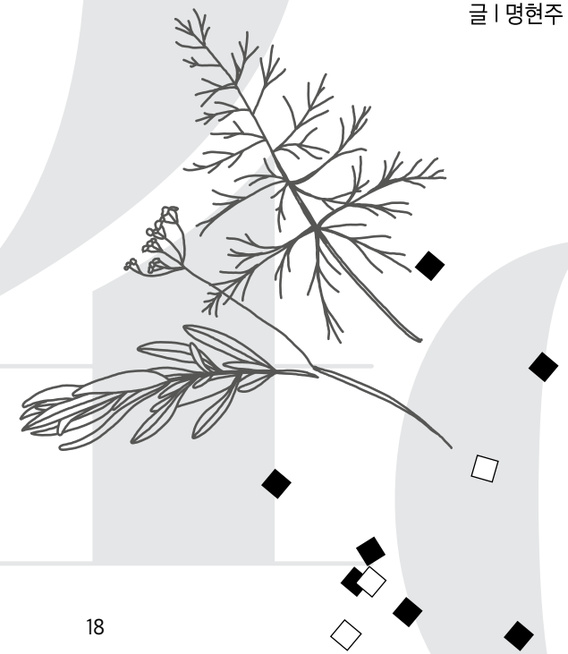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를 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정탐군들을 보내 40일간 관찰하라고 했을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훈련 받았을 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세대가 준비되는 시간을 40년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새로운 방법으로 땅을 취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전진하고 멈추면 야영을 했습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장막을 중심으로 야영을 하고 또다시 행진을 할 때에는 민수기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가 앞장섭니다. 그리고 몇몇 레위 지파는 스불론 지파 뒤에, 그리고 나머지는 갓 지파 뒤에 다른 지파들 사이에 끼어 행진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3장 3-4절

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는 행진의 방법이 바뀝니다.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멘 언약궤가 먼저 나가면, 자신들의 진영을 떠나 언약궤와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지시합니다. 이전에 광야를 걷던 방식과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방법 또한 이집트에서 생활했던 방식으로 차지하지 않습니다. 불화살과 돌들이 날아오는 블레셋과의 전투나 어느 전투에서든 앞에 나섰던 것은 창과 방패가 아닌 언약궤와 레위 지파들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말과 병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 앞에 서며 승리하며 약속의 땅들을 취했습니다. (사무엘상 17:45)

임마누엘 장로교회의 지난 40년간의 걸음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세상의 방법과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나가는 교회 되기를 예루살렘 시온에서 축복합니다.

글 | 명현주 선교사



니제르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2009 년 Wycliffe Bible Translator에 의해서 아프리카 니제르에 선교사 자녀 학교 (사헬 아카데미)의 수학 및 생물 교사로 파송 되었습니다.

사헬 아카데미에서 10년 교편 후 현재는 현지 니제르에 85%가 넘는 학교 연령 여학생들 교육의 혜택이 없는 것을 돕기 위해 2017년 부터 무료 교육 크리스찬 여학교를 (Grâce Academie)시작, 매년 국가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Grâce Academie는 니제르의 첫 기독교 기숙 학교이며, 학교 필수 과목에 성경과 컴퓨터가 있고 이 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음악과 한국말 과목이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으나 가정 형편상 중학교 진학이 어려워 12살에 (적게는 9살에도) 아무라도 지참금을 아버지에게 가져 오는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것이 이곳 아이들의 실정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부모님이 딸이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강제 결혼 시키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조건으로, 정식 중고등 교육, 신앙 성장 도모, 신체 건강, 사회 생활 향상 등 전체 인성 교육의 기회를 무료 제공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학교에서 교육 받은 학생들은 자신들을 주님께서 친히 뽑아 주신것에 감사하며, 이 나라에 주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용사들로 방학 때마다 각기 자신의 시골 마을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2009년 제가 파송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후원금을 보내 주시고, 가끔 개인 교우분들께서 특별 헌금을 보내 주실때도 있습니다. 현재는 한준수 장로님 목장에서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2016년 12월에 임마누엘 교회 첫 단기팀이 다녀 간후, 2019년 1월, 2020년 1월등 제가 니제르에 온지 11 년 동안 임마누엘 단기선교팀이 3 번 다녀 갔습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의 40주년 축하합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40년이란 횟수를 셀 수 있는 여기까지 올 수 있기에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교회를 사랑 하신 여러분의 헌신과 자기 부인의 아픔을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고 더운 더 높은 곳으로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선 보기 드문 큰 교회로 주님께서 키워 주셨는데 그 큰 힘을 오직 주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시급한 영혼 구원에 모든 힘을 기울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글 | 정혜림 선교사

A국에서 인사드립니다

우리 부부는 제가 십대 때, 제 아내는 대학생 때에 저희 삶을 선교사로 살 것을 주님께 헌신하였습니다. 대학교를 마치고 선교단체에서 잠시 사역을 한 뒤 미국으로 와서 신학을 하였고, 미국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선교사로 헌신한 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선교의 비전과 열정은 저희 마음 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임마누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아프리카와 중동을 잠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행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 번 성령을 부어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크게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산호세로 돌아왔지만 선교지를 향해 강권하시는 열정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선교지로 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 9월 교회를 사임하고 산호세를 떠났고 한국에서 잠시 준비 기간을 거쳐 이듬해 2014년 봄 아내와 세 아이들과 함께 A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A국에 도착한 후 우리는 A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이곳에서 팀을 이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Church Planting Movement (교회개척배가운동, CPM)로서 쉽게 말하면 지하 교회 개척 배가 운동입니다. 그 동안에는 S난민 무슬림들 안에서 CPM을 하였고, 현재는 A도시를 타겟하여 그 도시에서 CPM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사역은 전략적 예배와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몸 담고 있는 선교단체와 함께 저희가 있는 A국 전역의 주요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예배와 중보기도를 인도하고 CPM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9월 첫째 주일까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며 청년부와 3부예배 찬양인도를 담당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참 그립습니다. 현재는 임마누엘교회 목장 후원 선교사로서 3개의 귀한 목장들이 우리와 동역하고 있습니다. 목장과 그 외의 개별 성도님들께서 우리 가정과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 드리고 매주 수요일 예배 때마다 저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기도와 후원과 사랑이 저희 가정과 이 땅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성도님들과 동역하는 세 목장의 식구들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와 선교부의 리더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의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 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리신 손원배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사역자님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맞이하는 새로운 시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시길 기도 드립니다. 제 기억 속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는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런 귀한 교회 입니다. 언제나 그러한 주님의 얼굴을 향한 갈급함을 잃지 않는 교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더욱 되시기를 멀리서 기도 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있는 이 땅이 복음을 모르는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큰 부흥을 주시고 이 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행하신 크신 일로 인하여, 그 날에 임마누엘의 성도님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저희 다섯 식구 모두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40주년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글 | 이**, 유** 선교사

인도에서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백숙경 선교사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만약 저를 사용하실 거라면 개인적으로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라 여겼던 30대에 선교지로 보내주시길 늘 간구하면서 제 자신을 선교에 노출시키면서 기도하던 중, 2011년 2월 28일 북가주 소재의 마라나타비전교회에서 북인도로 파송을 받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인도 사역은 크게 6가지의 사역으로 나뉩니다. 복음 전도와 교회개척, 사역자 양성 훈련, 66권 성경 학교, 인도 총회 신학교, 출판 및 인쇄 사역, 인도 총회 감독입니다. 복음화율 0.1% 미만의 지역과 미전도 미접촉 종족을 대상으로 복음 전도와 교회개척 및 현지인을 사역자로 양성하는 훈련(교회개척 사역자 양성 훈련) 그리고 인도 "새 생명 선교교회 교단"을 세워서 인도 총회를 돕고 있으며, 인도 총신 신학교를 2015년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전도를 통해 얻은 새 신자들을 교회 개척 사역자로 훈련하고, 사역자된 현지인을 총회 신학교에서 입학시켜 목회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인도와 임마누엘의 인연은 2012년에 북가주 지역에서 개최되었던 '미전도 종족 개척 설명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설명회에 참석하신 손원배 목사님께서 인도 구자랏 주의 미접촉 종족(복음화율 0%) 중 3개의 종족을 입양해 주셔서 현재까지도 임마누엘 교회에서 종족 개척 사역자을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결과 구자랏 주에 있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10개의 미접촉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31개의 교회와 861명의 신자와 32명 사역자가 종족 내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과 인도의 한 주(State)을 입양하여 종족 개척 사역자들을 미접촉 종족 내로 파송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받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한 열매가 있는 '총체적 협력 선교'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체적 협력 선교: 지역 교회+파송선교사+현지 교회+선교 단체의 협력 모델)

임마누엘 장로교회의 40주년 축하합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섬김으로 이루신 40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장년 40이 되신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완숙함으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계 복음화의 제단이 되는 교회로 더욱 발돋움 하시길 축복합니다!

글 | 백숙경 선교사

아이티에서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저는 아이티 모이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 광 선교사입니다. 저는 2010년 유래 없는 아이티 지진 소식을 접하고 아이티 단기선교로 시티 솔레이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가난과 고통속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하는 작은 마음의 시작 이었으나 사역 도중 그 곳에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후 7년간 미국과 아이티를 오가며 선교사의 삶을 위한 훈련과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8년 2월 본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아이티 선교사로 파송되어 3년째 모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모이지역은 수도인 port au prince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작고 소외된 산간 마을입니다. 전기 공급조차 되지 않고 흙더미 집에서 문명의 혜택이 전혀 없이 매일의 끼니를 걱정하는 그 곳에서 예배를 통한 구원과 심령의 회복, 교육을 통한 제자 훈련,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 영혼 구원 사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센터내 성전 건축은 60%이상 진행 중에 있으며 날마다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 성경 공부를 야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 속 깊은 마을의 가정들을 방문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아이들과 고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현실 속에 센터내 학교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간이 천막을 치고 선생님을 고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제 사역을 위해 3곳의 고아원, 2곳의 미 자립 교회를 선별하여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이는 고아원 시설이 너무나 미약하여 하루에 한 끼 식사 해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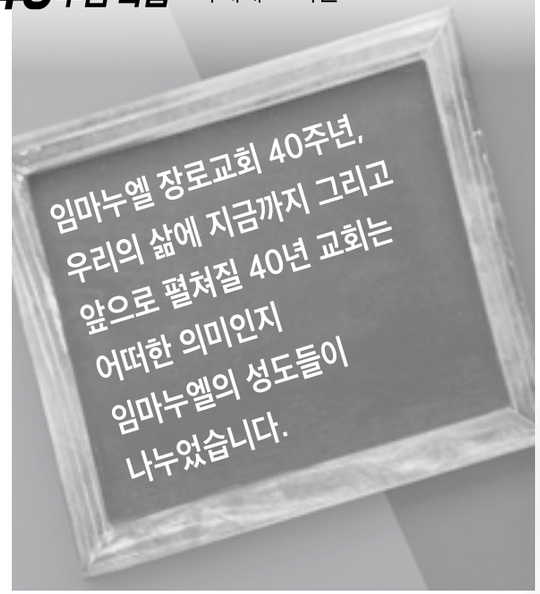
저는 29년 전 청년 시절부터 임마누엘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3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작게 시작한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역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교회로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임마누엘 교회는 중보기도를 통해 아이티 선교를 후원하고 있고 목장의 연계로 모이를 기도하며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단기팀이 함께 와서 전도와 구제, 교육 사역을 통해 선교에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교회의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한 임마누엘 교회 창립 40 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이 부어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이 증거되고 성결한 삶의 훈련이 살아있는 교회로 더욱 굳건히 서 가시길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글 | 정광 선교사



나의 영혼의 안식처
나 같은 죄인들의 피난처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곳
사람이 사는 목적을 배우는 곳
성도들과 함께 사랑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곳

황의철 장로 (신앙위원회)

저에게 교회란
영적인 양식을 받아먹고
말씀에 의지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사역하는 또 하나의 집입니다

김수용 (서부 평원 도미니카 목장)

아픔과 기쁨의 눈물로 하나되는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교회. 성경학교, 주일학교,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비밀과 보화를 함께 찾아가는 자랑스러운 형제 자매들, 원인도 알 수 없는 갖가지 잦은 수술로, 암투병으로 지치고 힘들때, 안타깝고 칠흑같은 터널의 날들 조차도 함께 동행하던 친구들, 여전히 아직도 주님 만날 그 먼길, 향해 손잡고 함께 할 우리 모두, 내게는 아름답고 소중한 가족인 내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임마누엘 장로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벌써 40주년을 맞네요.
또 여기까지 지켜 주시고 보호하신 주님께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여전히 그모습으로 살아낼 우리 모두를 눈동자 같이, 적자 같이 변함없이 지켜 주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혜경 권사 (호산나 찬양대)

나에게 교회란 사랑과 따뜻함이 있는 고향집과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곧 인자하신 부모님) 만나 대화하며 때론 하소연도 하고 울며 응석도 부릴 수 있으며 형제자매들과 웃으며 음식도 나눌 수 있는 평안함이 있는 곳, 또한 세상에서 지치고 아픈 마음에 주님 말씀으로 치유받고 기쁨과 소망 그리고 행복으로 재충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김옥남 권사 (에녹 평원)

아버지 품안이요 안식하는 집
예수님 신랑맞을 예행연습지
생명의 젖줄이요 성장하는 곳
에너지 공급처요 삶의 원동력
맡은일 충성으로 열매 맺으며
성도들 사랑하며 섬겨가는 곳

상한것 먹으면 설사하고
과하게 먹으면 체 하듯이
건강한 생명젖 만나처럼
날마다 나에게 공급되는
나에게 교회란 그런곳이다.

이에스더 전도사 (에녹 평원)

나에게 교회란?
나에게 교회란 큰 가족과도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이 되고 주신 자녀로 가족의 수가 늘어나고, 자녀가 결혼하여 또 그 자녀를 낳아 한 집에 살면 대가족이 됩니다. 이런 대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사랑 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사랑까지 받기 때문에 가족에게 받는 사랑이 최소한 곱절은 됩니다. 부모도 자녀를 키우는데 훨씬 수월하고 조부모도 손주의 재롱을 보느라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런 대가족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가정이 모여 목장이 되고, 그 목장은 초원이 되며 평원이 됩니다. 목장 식구의 기도제목이 나의 기도제목이 되고 그 가정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나에게 큰 가족과도 같습니다.

박기한 목사 (남부 평원)

김주언 (유년부)

To me, Church is a representation of God's perfect life that he had assigned to us before Eve was tricked by Satan into eating The Fruit. Church altogether is a group of persons that worship God together and love each other. As Pastor Brian once said, pleasing God is a manner of being close to God. Being close to God, however, is not as hard as you think! Pastor Brian elaborated on this statement, saying that actually, to be close to God, you just have to have the intention and the will to do so.

Casey (youth)

저에게 교회란 제가 항상 있어야할 곳입니다.
삶이 고달파 숨이 턱턱 막히고 힘들다가도 숨이 쉬어지고 맘이 편해지는 곳. 사랑과 용서, 기쁨과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게 우리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소라 (한어 청년부)

저에게 교회란 흙과 같습니다.

제각각 다른 생김새와 생각, 배경,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섞어지고 부서지고, 양분이 되고 새로운 믿음의 싹을 틔워 선교하고 전도하는 곳.
교회는 흙과 닮았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역할을 가지고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가지만 모든 개체들이 연결되어 함께 있어야 건강한 토양을 이루는 흙.

그래서 모두가 의미있고 정죄되지 않아야 할,
서로 완벽하지 않지만 합이 되어야 비로소 작은 새싹부터 뿌리깊은 나무까지 지탱해줄,
생명의 터가 되는 흙.

흙으로 빚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가 우리임을 고백하며
회개의 거름을 뿌려 건강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교회.

저에게 교회는 흙과 같습니다.

이지은 (산호세 평원 쿠칭 목장)

임마누엘과 함께한 어린시절이 자랑스럽습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church's 40th year anniversary

임마누엘 교회 창립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임마누엘은 제가 대학교로 가기 위해 떠나던 1998년까지 18년간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족을 만나기 위해 베이지역을 찾을 때마다 변함없는 안식처와 같은 곳이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저 역시 태어날 때부터 임마누엘 교회의 가족이었고 올해로 40살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지낸 제 기억들은 다른 1세대 이민 가정과 비슷할 것입니다. 한국어로 말씀하시는 장년층 예배와 카레라이스로 기억되는 점심, 여름마다 있었던 배구대회,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던 작은 유스 그룹이 함께 찬양을 했던 기억들입니다. Susie JDSN과 박 목사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중학교 시절까지 믿음의 바탕을 단단히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믿음으로 성장했던 시절은 스티브 목사님과 보낸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에 다니던 중 에반 홍 목사님을 도와 유스 아이들의 수련회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보낸 시간, 저는 많은 일생의 우정을 쌓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때입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굳건한 믿음의 기초가 된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저에게 준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임마누엘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랜 세월을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 뿐만 아니라, 제가 임마누엘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어린시절을 함께 보낸 반가운 얼굴을 보며 드는 생각은 이것이 하나님이 임마누엘에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임마누엘교회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는 것이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임마누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글 | 에즈라 안

Congratulations on the church's 40th year anniversary. Emmanuel was my home church for 18 years, until I left for college back in 1998. Since then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but Emmanuel has been a stable constant every time I come back to visit my family in the Bay Area.

I too am also turning 40 this year and I have been a member of Emmanuel since birth. Many of my early church memories are very similar to other 1st generation Korean-Americans with adult services in Korean, curry rice for lunch, summer 9-man volleyball tournaments and a small youth group spanning elementary to high school students worshiping together. Leaders such as Susie JDSN and Pastor Park were very formative in my early years through middle school building a strong foundation in God. However, I really grew in faith during my time in high school with Pastor Steve, and during my visits in college helping out Evan Hong JDSN with youth retreats. My time at Emmanuel has built many lifelong friendships and more importantly was when I came to accept Jesus Christ. This is the foundation in which I have been building my faith upon ever since.

I am more than grateful for everything that Emmanuel has given to me and I look forward the church's continued growth. Despite the church's exponential growth over the years, I still see many familiar faces that I grew up with when I visit and I believe that is a testament of the work being done at Emmanuel. I am always proud to say that I grew up at Emmanuel and I wish the church many more years to faithfully serve God.

With Regards,
Ezra Ahn

임마누엘과 함께 걸어온 나의 길

우선, 임마누엘의 훌륭한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가르침 덕분에 제가 하나님을 따르고 제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여정이 임마누엘에서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갈 길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제가 처음 임마누엘 교회에 간 건 두살 때였습니다. 그 때 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부터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 듣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겠지요. 지금도 송호영 전도사님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저는 신나게 뛰며 즐겁게 찬양했던 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전도사님은 나와 내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자라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지날 때마다 임마누엘 교회는 저의 믿음 생활을 지켜줄 많은 것들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7살때부터 활동해온 어린이 합창단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많은 곡을 배우고 VBS는 성경을 배우는 동시에 즐거움과 기쁨도 주었습니다.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함께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끈끈해졌어요.

하지만 제 믿음의 바탕이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평탄한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2학년때 힘든 일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게 주신 것이 유년부의 2학년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성경학교 선생님의 기회였습니다. 매주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눌 때마다 저의 믿음도 확신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여정을 걷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었고 지금도 그 순간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지금은 모두 중학생이 된 그 아이들을 통해 저에게 주신 가르침의 은사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후로 저는 제 믿음을 재정비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 찬양과 노래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확신 아래 지금 저는 음악 교육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학 공부를 마치면 꼭 임마누엘 교회에 다시 돌아와 이번에는 찬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제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을 모두 갚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글 | 엘리샤 박

My Journey in Emmanuel Presybetarian Church

Firstly, I would like to address that thanks to the guidance of my amazing pastors and teachers, I was able to pursue my dreams and God. My journey began in this church, and I am excited to see how much further I will go. I was only two years old when I first came to Emmanuel Church. Being so young, I was yet to learn the importance of God and the ways of living a Christian life. Because I began to learn at such a young age, I was able to build a strong foundation of trust and belief in God. I remember vividly whenever Pastor Derek would begin his praise time, I would have so much fun jumping and singing praises to the Lord. He was able to make sure that me and my friends all felt the love and care that he and God had for all of us. Even as I continued to grow and hit different milestones in life, Emmanuel Church provided me so many resources to continue my faith. I had been in the children's choir since I was seven, learning songs and praises to worship the Lord. VBS provided much entertainment and fun while learning about the Bible. These kinds of opportunities allowed me to grow more connections with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nd God. However, despite my strong faith and foundation, there was a period in my life where I had many struggles. When I was a sophomore in high school, I had many hardships in my life and strayed away from God many times. Despite this, I prayed to God asking for help, and help came in the opportunity to become a second grade teacher. When I went to church every Sunday morning to teach my students about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for us, I was reassured in my faith. I had so much joy watching my students begin their journey in Christ and I still miss them everyday. They have all graduated to become wonderful middle schoolers so far and I was able to realize through them my true passion of teaching. I was able to renew my faith and continue what I loved to do: worship and sing. Under the assurance of Christ, now I am able to pursue a major in teaching Music while continuing my relationship with God. Once I graduate from college, it is my dream to come back to Emmanuel Church and teach children once again, this time through worship and song. I am forever grateful for what this church has given me, and I hope that one day, I will be able to give back as much as I have received.

Elicia Park

임마누엘, 어린시절의 내가 구원 받은 Home church

저는 1981년부터 1984년까지, 그리고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임마누엘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제가 5학년이었던 1981년 그리고 11학년이었던 1987년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임마누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할 때 교회는 림택권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셨을 때입니다. 제 아버지는 1988년 김진이 목사님을 모시고 장로로 섬기셨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한 후 2년동안 아이들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던 중 저는 다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적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교회가 제가 구원받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서니베일의 Congregational Church에서 예배를 드린 그 당시에는 어린이 사역이 정말 미흡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목양을 받지 못한 채 뛰어다녔고 성경 교육이 있긴 했지만 한국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었음에도 저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린 소년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과 천국, 그리고 지옥을 믿었지만, 만약 사람이 100년 정도 오랜 시간을 살게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에 비할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고모께서 당신은 위험한 동물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야생 동물을 지옥에 비교할 수 있지?" 저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는 했지만 그것이 믿음에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저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만약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고 나쁜일을 너무 많이 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라 생각했죠. 그때 저는 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저는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느날 교회에 새로운 부부가 왔습니다. 남편이 미국인이었고 Keith Moyland라는 이름의 경찰인 루터교인이었습니다. 부인은 1.5세의 교포로 한국말과 영어가 모두 가능한 분이었습니다. 이름을 듣지는 못했고, 우리는 그녀를 Mrs. Moyland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백인들이 다니는 루터교회에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한국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부족한 가이드라인 속에 성경말씀을 배우는 것을 본 부부는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목사님께 밝혔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그 부부의 제안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어린이 사역이 시작되던 첫 예배의 시간, 그 부부의 딸이 피아노를 쳤고 Mayland씨가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은 정말 명료하고 확실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을 한다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용서를 받고 은혜로 구원되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처음으로 듣는 말이었습니다. 적어도 영어로, 혹은 제가 확실히 이해하고 마음에 담겨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순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날, 6학년이었던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1981년과 1991년 사이 임마누엘 교회가 두개로 나뉘어졌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린시절의 제게 그런 영적으로 힘든 일을 겪는 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우리 가족은 두번을 겪어야 했습니다. 두번째 사건은 1991년, 그당시에 제 아버지가 장로 직분이셨기 때문에 더 큰 충격과 고통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교회의 분열은 이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교회안의 성도들에게 너무 큰 상처였고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깊은 일이었습니다. 영어사역 목사로서 섬겨 오는 동안 저는 2세대 (현재는 3세대)를 대상으로 많이 사역해왔습니다. 그들은 어린시절 교회의 분열에 의한 힘든 경험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떠나버린 이들이었습니다. 1994년, 그 두 교회가 다시 합쳐져 임마누엘 교회로 다시 세워졌을 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같았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미국의 한인 교회에서 너무 흔한 일입니다. 불안정한 이민생활로 인한 상황이 많은 한국분들로 인해 지위와 명예와 장로의 권위 등에 대한 욕구를 교회에서 부정의롭게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목사님에게 나타날 때는 더 심했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가 항상 겸손과 회개, 순종하고 신실하여 자신을 위한게 아닌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리더를 찾고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임마누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된 주님의 교회로 주님을 모시고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남기를 바랍니다.

저는 산호세에서 태어나 자란 토박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의 집과 같은 교회가 두 곳이 있는데, 임마누엘은 제가 구원받은 곳이며, 뉴호프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곳입니다. 실리콘벨리는 단지 지구상의 한 도시 뿐인 것이 아니라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한편 많은 야심찬 이민자들이 찾아와 문화적으로 갈곳을 잃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정말 큰 유혹들과 압력이 가득합니다. 따라서 임마누엘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이민교회로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외치는 임마누엘 교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의 40주년을 축하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10년을 못 넘기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교회는 앞으로 다가올 40년도 부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6)

글 | 박수상 목사 (실리콘벨리 리바이브 장로교회)

박수상 목사님은 현재 서니베일에 위치한 실리콘벨리 리바이브 장로교회 (Revive Presbyterian Church of Silicon Valley)의 담임 목사님으로, 2009년부터 2018년 까지는 산호세 뉴 호프 교회 (San Jose New Hope Christian Reformed Church)의 영어회중을 담당했습니다. 결혼하여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아버지 박홍범장로님, 어머님 박순주 권사님, 남동생 박필상 형제님과 임마누엘 교회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I was a member of Emmanuel Church from 1981-84 and 1987-91. I was in the 5th grade in 1981 and in the 11th grade when we returned to the church in 1987. Our family joined Emmanuel when the church was led by Pastor 림택권. My father became an elder under Pastor 김진이 in 1988. I left Emmanuel as a regular member after teaching Sunday School to children during my first two years in college at Stanford.

The most important memory I have from my years as a youth was that Emmanuel was where I was saved. At that time Emmanuel met at the Congregational Church of Sunnyvale, and there was very little in the way of a children's ministry. Most of the children ran around un-shepherded. Even when there was some teaching of the Bible, it was in Korean, and I could only understand parts of it. Though my parents were devout believers, I did not know the Lord. As a boy, I definitely believed in God, Heaven, and Hell. I reasoned that even if one lives 100 years, supposedly a long life, that is nothing compared to eternity. So I mostly feared death and feared God because I knew that He could send me to Hell, and I most definitely wanted to go to Heaven forever. My aunt once told me that she was most afraid of dangerous animals, and I recall thinking that that was crazy. What is a wild animal compared to Hell? I took church quite seriously, though not out of faith. I did not know it, but at the time I was a legalist. I thought that if one did good, perhaps God might take you to Heaven, but if you did too much bad in your life, you would be condemned to Hell. I thought I was a Christian, but I was actually more of a Pharisee.

A new couple came to church. The husband was a white, Lutheran police officer in Milpitas named Keith Moyland. His wife was a bilingual, 1.5 generation Korean-American Presbyterian. I never learned her name. We called her Mrs. Moyland. I believe they attended a white American Lutheran church in the morning and decided to also attend a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the afternoon. They saw that the children had little guidance and teaching in the Scriptures and asked the pastor if they could organize a Sunday school program. He was happy to say yes. During the first children's worship service their daughter played the piano, and Mr. Moyland preached. What he taught was clear and straight-forward. He preached the Gospel. He said that all are sinners and are thus deserving of Hell. If you tried to make it to Heaven on your own good works, you have no chance, but because God's Son Jesus died on the Cross and paid for all your sins, if you believe in Him, you will be forgiven, saved by grace, and go to Heaven. I had never heard that message before—at least never in English or in a way that made any sense to me. It was incredible. Suddenly the Cross made sense. What an amazing plan from God. It was a no-brainer. That day in the 6th grade I believed in Jesus and was born again.

There is another important memory I would like to share. Between 1981 and 1991 Emmanuel Church experienced two significant church splits. It is a terrible thing to experience even one such spiritually traumatic event when one is young, but my family saw two. The second one in 1991 I remember especially stressed and weighed heavily on my father since he was then an elder. A church split is like a divorce. It causes deep wounds in the family members, especially to those who are young. Over the years as an EM pastor, I have ministered to many second (and now third) generation people who had run away from Jesus and the church following painful church splits that they had experienced in their youth. When the two congregations that had broken apart were reunited in 1994 to become a renewed Emmanuel, to me that felt like a miracle from God. Church splits are all too common in Korean-American immigrant churches. Is it because becoming displaced and lacking status drives too many Korean men to crave the status, honor, and power of the eldership in worldly, un-Godly ways? It's even worse when pastors do that too. I pray that Emmanuel would always seek and establish humble, repentant, obedient, and faithful leaders, ones who revere the name and honor of Jesus far above their own, and in this way may Emmanuel remain a united and loving family of the Lord, serving Him and glorifying Him for many years to come.

I am a native of San Jose/Silicon Valley, and here in my beloved hometown I have a special love for my two "home" churches, Emmanuel where I was saved and New Hope where I was confirmed and ordained as a pastor. Silicon Valley is not just one city in the world but one of the most important in history. Yet it is a city of ambitious immigrants where people regularly feel culturally displaced and homeless in the world. The temptations here are powerful, and the pressures are constant. Hence, the faithful witness of an immigrant church like Emmanuel in this intensely worldly city is tremendously important and needed. I am very grateful for you, Emmanuel Church, and the many the ways you proclaim the Gospel. Congratulations on your 40th anniversary. I personally know that the church almost did not make it to its 10th. Churches sometimes do not last long, but may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thrive for at least 40 more years to come and shine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in the face of Jesus Christ (II Cor 4:6) to the nations of this city.

Blessings,
SooSang Park

SooSang Park 박수상 is currently lead pastor of Revive Presbyterian Church of Silicon Valley (revivepres.church), a church plant in Sunnyvale, CA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He was the lead English Ministry pastor at San Jose New Hope Christian Reformed Church from 2009-2018. He is married to Grace and has three children, Hudson, Laura, and Elizabeth. His father is Elder 박홍범, and his mother is 박순주 권사님. His younger brother PilSang 박필상 was also part of Emmanuel.

임마누엘 교회는 아주 어릴적의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임마누엘에서 자라난 저는 지금 아내인 그레이스와 함께 엘리야, 주빌리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타이완의 타이페이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어린 시절 저의 모습을 빚어낸 곳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기억이라면 역시 임마누엘 교회 유스부에서 지낸 시간이었죠. 그맘때의 아이들과 같이 이기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제게 그 당시의 유스부를 섬기셨던 에반 홍 (Evan Hong) 목사님은 정말 헌신적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 그리고 훈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가르치셨고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반 홍 목사님과의 추억을 나누자면 정말 많은 기억이 떠오르는데, 제게 가장 소중했던 기억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뛰었던 고등학교 풋볼팀의 게임에 오셔서 저를 응원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단상에 서서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저의 이름을 불러 대고 계시던 모습에 정말 놀라고 당황했던 동시에, 그때 제가 받은 사랑받고 있다는 감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유년시절을 돌아보면, 주님의 사랑과 에반 목사님과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항상 제 주변에 계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교회는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롤 모델인 분들을 만난 곳입니다. 임마누엘의 목사님들, 어르신들, 그리고 집사님들과 물론 제 아버지... 이 모든 분들은 성심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그 어떤 프로그램 보다도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임마누엘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제 가족과 저는 지금 타이페이의 Thrive Church에서 대학생들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자 양성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믿음을 갈망하는 60 여명 이상의 청년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타이페이의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말입니다.

40주년을 맞이하는 임마누엘 교회를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곳에서 그 선한 싸움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글 | 데이빗 손

My name is David Son, Emmanuel Church was my home ever since I was a small child, all the way until I went to college. Currently, my wife (Grace), children (Elijah & Jubilee), and I are serving as a long-term missionaries in Taipei, Taiwan.

Emmanuel Church has played a huge role in shaping my early life. My fondest memories are from Emmanuel Youth Ministry. I was certainly an immature and selfish teenager, but I will always remember how our youth Pastor (Evan Hong) was committed to loving us, serving us, and discipling us. He taught our youth group how to have godly character, and he sacrificed everything he had to show us God's love. There are many stories I can share about Pastor Evan, but the moments that I cherish the most are the small ones. For example, he would come to my high school football games and cheer for me. I still remember hearing his loud piercing voice chanting my name from the stands, and feeling embarrassed, but also very loved. When I think back to my youth, I cannot help but conclude that God had always surrounded me with His love, through people like Pastor Evan, even when I didn't realize it.

Although there is no such thing as a perfect church, Emmanuel Church was a place where I found many Christ-like role models who displayed what a life of faith can look like. The pastors, the elders, the deacons, and also my father, are all examples of integrity and devotion to God's kingdom. More than any program, it is the people that I am most thankful to God for.

Today, my family and I are serving at Thrive Church whose vision is to make disciples of college students and young adults in Taipei. Our church is filled with 60+ young people who are hungry to follow Jesus. Please pray for us, that God would raise up many kingdom-workers among the young generation in Taipei.

Finally,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Emmanuel Church on the 40-year anniversary! God has blessed many people through the faithfulness of the servants at Emmanuel. May you continue to run the race, and finish well!

In Christ,

David Son

임마누엘 나무 위에 뿌리깊은 우리집

"임마누엘의 40주년을 맞아 우리 가족 4대가 그 동안 임마누엘 뜰 안에서 임마누엘과 그 여정을 같이 하며 오늘까지 온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청마루에 앉은 할머니는 쪽진 머리에 고운 한복을 입고 콧등에 돋보기 안경을 걸친 채 성경책을 펼쳐들고 계십니다. 할머니 주변으로 하얗게 햇살이 둘러져 있습니다. 한 줌 자그마한 몸체의 할머니로부터 피어나는 평화로운 기운이 온 집에 가득합니다.

이른 새벽,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을 걸어갑니다. 엄마 손을 잡고 뽀드득 소리를 내며 갑니다. 새벽예배 가는 길, 교회가 있는 언덕을 향해 타박타박 걷던 길에는 아무 것도 없고 눈만 가득합니다.

그리고도 아주 많은 장면들이 스쳐갑니다. 기억이 시작되는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도록 즐겁고 벅찼던 수많은 순간들의 배경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끝에 임마누엘이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며 크게 클로즈업 됩니다.

1985년, 큰 딸 (최혜랑 권사)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아버지 김영환 집사님 그리고 십 여년 전 하나님 곁으로 가신 어머니 정지안 권사님께서 두 아들과 함께 임마누엘교회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 무렵 2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진이 목사님은 저희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의 전도사님이셨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다시 미국에서 까지 연결이 되어 미국에서의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과 함께한 순간순간이 우리 가족의 삶에 자양분이 되었던 36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합니다.

1대, 저희 아버지이시고 할아버지이시며 증조 할아버지이신 김영환 집사님. 올해 93세이시지만 아직 직접 운전하실 만큼 정정하시며 2부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본당 앞에서 두번째 줄 통로 자리는 아버지의 지정석(?)이지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일찍 자리잡고 예배를 준비하시며 그렇게 드려진 예배는 아버지의 큰 기쁨입니다. 어머니께서는 1992년에 권사 임직을 받으시고 즐겁게 섬기시다가 2008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프문베이(Half Moon Bay) 가는 언덕 위 스카이 론 묘소에 생전에 함께 섬기시던 분들과 나란히 이웃하여 묻혀 계십니다.

2대, 큰 딸 최혜랑 권사와 사위 최정규 장로님. 두분 다 지금은 현역에서는 은퇴하셨지만 그간 임마누엘 교회의 일꾼으로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섬기셨고 아직도 섬김의 끈을 놓지 않고 열린문 선교회와 지역사회 봉사 (글로벌 어린이재단) 등에서 활동하십니다. 맏딸인 최혜랑 권사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지켜온 찬양의 은사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섬길 것입니다. 작은 딸 김혜석, 호산나 찬양대원이라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큰 아들 김순규 가족과 작은 아들 김승규의 가족, 오래 동안 임마누엘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믿음의 생활을 함께했던 두 가족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잠시 임마누엘에 출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곧 다시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전에 그랬듯이 4형제가 같이 찬양 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3대, 큰 딸의 후손으로 영어부 예배에 참석하는 손녀 최진나, 최진선, 사위 데이빗 채, 제임스 박이 있고 작은 딸의 아들로 임마누엘 교회 행정간사의 직분으로 일하는 신정환이 있습니다.

4대, 증손자 채대병, 채혜주, 채준병, 박가준은 아직 어리지만 유아세례를 받으며 일찌감치 임마누엘의 따뜻한 기운에 발을 담그었답니다. 앞으로 십년, 이십년 이 아이들이 임마누엘에서 어떤 재목으로 자랄지 기대가 큽니다.

예배당 맨 앞 자리에는 아직도 정정하신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찬양대에는 녹색의 가운을 입은 두 딸이, 3대들은 영어예배로 혹은 청년예배로, 4대 어린 아이들은 유아부와 초등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 후 점심 시간에는 얼굴을 맞대며 즐거운 한끼의 식사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그 동안 임마누엘로 인해 맺은 많은 성도들과의 교제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많은 행사와 그로 인한 추억들이 틈틈이 되살아나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도 쉼없이 저희 가족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후손들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지침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이끌어줄 임마누엘, 연로하신 아버지께는 안식의 터전이 되어줄 임마누엘, 저희 1세들에게는 아직 남은 섬김의 열정을 계속 격려하여 부지런히 성도의 길을 가게 도와줄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합니다.

40주년을 맞은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더욱 발전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글 | 김혜석 (호산나 찬양대)

2010년 부활절 공연

2010년 성탄절 공연

2012년 성가대 메시아 공연

2013년 HOP TO GOD

2015년 VBS
2004년 VBS
2020년 VBS

2017년 에녹 야유회

2018년 교육부 합동 VBS

2013년 임직식 단체사진

2016년 목자, 부목자 단체사진
2016 전교인 성경

2019년 공동의회
2016년 유아세례

또다른 영광의 40년을 향하여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임마누엘 감사호'를 발간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1980년에 태어난 사람이 어느덧 마흔을 넘긴 장년이 된 것과도 같이 우리 교회도 어느덧 성숙의 열매를 바라보는 장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임마누엘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껏 지내온 40년의 역사에 주님의 영광이 깃드시는 기쁨이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4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는 노아의 홍수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내렸음을 의미하지요. 출애굽기로 가면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헤맴과 방황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준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게 이끌리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지요. 분명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도 공교롭게도 각각 40년간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황금기'라 불리우는 완벽한 통치의 시간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철저하고 신실하게 보낸 '준비의 시간'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대근동에서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완전한 숫자였습니다. 10 이라는 숫자 또한 원주를 둘러싼 9와 중심을 상징하는 1이 더해져서 채워진 완전한 숫자이며 이 둘을 곱한 숫자가 40이기 때문에 아주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숫자를 상징하였습니다. 고대근동 문화의 영향 속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40이란 숫자는 우리에게 완벽한 준비 기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부터 이어지는 임마누엘교회가 맞이할 앞으로의 40년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확실한 사실은 아무도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온전히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시대를 보내며 아주 철저하고도 가혹하게 그러한 교훈을 배웠고 또 배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했던 여러 40주년 행사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 속에 거의 취소하거나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인간의 미래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을 신실하게 한주와 한달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만 앞으로의 40년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 하는 질문은 여전히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40년이 놀라운 양적 성장과 질적인 성숙으로 이어진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장년의 나이가 된 임마누엘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완벽한 준비의 과정을 마쳤다면 이제는 마음껏 일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과 기대는 더이상 어린 아이나 청소년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숙을 경험했습니다. 가정교회의 활성화를 통해 들은 말씀을 실천할 장을 펼쳤습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좀 더 많은 투자와 희생을 할 준비도 충분히 되었습니다. 지역 사회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몸의 근육이 쇠약해지기 전에 힘차게 사역해야 합니다. "주의 손과 발 되어 우리 이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의 비전을 묻는 질문이 나올 때 항상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에베소서 4장 11-16절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역에 매진해야 하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사역자로 빚어져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가 추구할 향후 40년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꿈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항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15절) 모든 사역과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교회로 함께 40년을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 박성호 목사

교역자

손원배 (담임목사)

박성호 (부목사, 10월11일 차기 담임목사 취임)

조종연 (부목사, 산호세평원, 신앙위원회, 전도위원회)

김인환 (부목사, 동부평원, 서부평원, 선교위원회)

박기한 (부목사, 남부평원, 북부평원, 관리위원회, 행정목사)

이산돌 (부목사, 비전청년평원, 예배위원회)

김승균 (교육목사, 교육위원회)

이수복 (전도목사, 선교위원회 해외선교부)

Tiffany Lim (임슬기, 전임전도사, EM 영어회중)

이에스더 (전도사, 에녹평원)

이승진 (전도사, 찬양위원회, 오케스트라)

김혜경 (전도사, 상담사역부)

교육부

Brian Hwang (전임전도사, 중고등부)

Sarah Hwang (전도사, 초등부)

김성신 (전도사, 유년부)

송호영 (전도사, 유치부)

서경의 (전도사, 사랑교육부)

직원

이정수 (관리 직원)

이상은 (재정 직원)

신정환 (사무행정 직원)

시무장로

최상훈 전광수 김흥규 장 홍 고정훈 박용갑 백준호 민경진 황의철 서윤원 김태영 김현준 김부웅 한준수 위현량 이태업

협동장로

김기홍 김성국 윤정기 이강민

안수집사

강성태 강창범 구명관 김광석 김동규 김범진 김영곤 김영복 김영철 김우정 김우찬 김인환A 김제찬 김종길 김종필 김학수 김홍규 노윤서 문경식 문병용 박명옥 박종화 박준희 박찬우A 서동욱 송욱영 안지철 용순영 윤상훈 윤성수 윤시현 윤혁진 이구진 이상은 이원재 이종상 이평우 장은규 정규화 정민호 정성보 정정수 정홍식 조성주 최인화 최진호A 최철수 한광선 한승훈 한의상 한의선

EM 안수집사

Tom Kimm

Philip Kim

Charles Park

James Choi

Jody Nguyen

권사

강한나 고윤홍 구윤경 김경순 김숙자 김승남 김정신

김춘자A 김한경 김현주 민미순 박경신 박옥진 박현주A

백영희 신미현 양희영 오명렬 오명자 이금희 이순희

이영란 이영숙 이인섭 장은영 전기열 전성숙 정구옥

정혜경 채인숙 최승희 최윤자 한원 황복림

목자

강성태 강창범 고석진 고정훈 구명관 김경진B 김규동

김낙은 김동규 김범진 김성범 김영곤 김영국B 김영철

김요섭 김용훈 김우찬 김웅 김일구 김재원 김정연

김종수A 김종필 김태형 김학수 김현배 김희성 남기영

노범준 노윤서 민경진 민형규 박명옥 박명춘 박성은

박재성 박종화 박진숙 박찬우 백영진 백원종 서윤원

손진우 송규현 송오빈 송욱영 송준현 신상훈 심도준

안성현 안종훈 안지철 엄태호 오진형 우민 우병기

우상중 위현량 윤시현 윤정숙 윤정희 이관오 이구진

이기수 이기형 이매디슨 이명호 이상분 이상은 이승덕

이용원 이원재 이정미A 이정수 이종상 이종현 이준승A

이치훈 이태업 이평우 임승범 임승쾌 정광록 정규화

정금섭 정정수 조성주 최동명 최상훈A 최상훈B 최송관

최영훈 최재항 최진호A 최철수 한광선 한승훈 한의상

한준수 홍성민 홍장원 황경석 황대행

에녹 평원 목자

김옥남 엄귀섭 윤여덕 최정자B 홍의웅 탁은숙 정광록

황두이 김모경 이상필

비전청년평원 목자

구성약 김병은 윤주영 박지혜 이수연 윤혜수 오태환

황은수 김용수 전현수 이건희

출처: 2020 요람

주일 예배

영유아부	10:00am, 11:45am
유치부	10:00am, 11:45am
유년부	10:00am, 11:45am
초등부	10:00am, 11:45am
중고등부 1부	10:00am
중고등부 2부	11:45am
청년부	2:00pm
영어 예배 EPC-EM	10:00am
장년부	8:20am, 10:00am, 11:45am

주일 모임

예배 중보기도회	7:20~8:10am
새가족 모임	매월 1, 2 주일, 1:15pm
산상기도회	매월 2째 주일, 1:30pm

평일 예배

수요 기도 예배	수, 7:30pm
화요 여성 예배	화, 10:20am
수요 에녹 예배	수, 10:00am
새벽 예배	월~토, 5:45am

평일 모임

목장 모임	각 목장 시간 따라
	매주 금, 토 혹은 주일
어와나 AWANA	수, 7:30pm
한국 학교	토, 9:30am
청년부 성령집회	금, 7:30pm
중고등부 REST	토, 6:30pm

www.epcsj.org

창립 40주년 감사예배

및

담임목사 취임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임직

Congratulations

일시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오후 3:00
장소 임마누엘 장로교회 동편 주차장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십시오. (마 25:21)

담임목사 취임	박성호 목사
장로 장립	박찬우 장은규 박준희 최철수 정규화
안수집사 장립	고석진 김경진B 김규동 김낙은 김성범 김현배 노범준 민형규 박명춘 박성은 손진우 송오빈 신상훈 신호준 심도준 양희홍 엄태호 우 민 우병기 우병삼 윤정희 이관오 이매디슨 이윤영 이종기 이치훈 임용훈 조상전 최동명 최송관 최영훈 최원묵 탁정업
권사 임직	김민희B 김현미 김희정A 박광미 박미영A 박영수C 박월애 박정임 박현숙 서진숙 송옥진 유정혜 윤신자 이정미B 장성수 정선희 정성희 조성현A 최건숙 한미성 황원경
명예권사 임직	윤선숙 윤영숙 이선자 이순남B 이정원 장인자 차은자 최재희 한인숙 홍정화

www.epcsj.org
(408) 263 5100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발행인] 손원배
[편찬인] 황의철
[기획] 장은영
[편집 및 번역] 김연희 동원봉 이정열 차연주 형세련
[사진] 김홍대 맹은희 박종현 윤영숙
[디자인] 강미영 윤주영 이지은 한혁

Thank you, God.

"예배와 영혼구원,
양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
EMMANUEL PRESBYTERIAN CHURCH